

KIA 김규성 “전천후 수비로 1군 자리 잡는다”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의 김규성이 수비 완성을 위한 '지옥 캠프'를 치르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되고 있는 KIA 마무리 캠프에서 가장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는 김규성이다. 전천후 수비로 꼽히는 그는 '수비 캠프'를 목표로 코치진의 집중 지도를 받고 있다. 다른 선수들이 방망이를 들고 타격 훈련을 할 때도 김규성은 김민우 코치와 미즈마타 타이기 수비 인스트럭터의 밀착 지도로 쉽지가 않다. 시즌 막판 입은 손가락 부상 여파도 있고, 무엇보다 김규성의 강점인 수비를 완성하기 위한 맞춤형 훈련이다. 지난 캠프보다 훈련량이 많이 늘었고, 조를 이뤄 수비 훈련을 할 때와 달리 혼자 실 새 없이 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규성에게는 말 그대로 '역대급 캠프'다. 김규성은 "훈련량이 역대급이다. 땀을 매일 많이 흘린다 보니까 살이 빠졌다. 지금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다"고 고개를 저었다. 벨트가 썩질 정도로 씹는 훈련에 힘은 들지만 김규성은 곁을 멈출 수 없다.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올 시즌, 이번 캠프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수비 완성 위해 코치들과 일 대 일 핑고 '지옥 훈련'
 내야 수비 실수 줄이려 포구 타이밍·스텝 등 중점 연습

알고 있다. 김규성은 4월 6경기에 나온 뒤 한동안 1군 무대를 밟지 못했다. 8월 21일 롯데전을 통해 다시 기회를 얻은 그는 내야 곳곳을 지키면서 어필 무대를 가졌고, 한국시리즈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리고 4경기에 출장했다. 김규성은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수비니까 힘들어도 참고하고 있다. 올 시즌 경험이 동기 부여도 됐지만,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더 하려고 한다"며 "남들보다 공을 더 빨리 뺄 수 있다는 게 내 장점이다. 하나 죽일 것 두 개 죽일 수 있는게 장점이다. 그런데 올 시즌 아쉬운 게 실수가 많았다"고 말했다. 손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는 발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김규성은 "일본인 코치님과 일대일,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는데 공을 잡을 때 포구 타이밍이랑 다리 움직임, 스텝 이런 것 많이 배우고 있다"며 "1루, 2루, 3루 다 다리 움직임이 다른데 여기 와서 많이 느끼고 있다. 여기 와서 핑고를 많이 받으면서 느끼는 게 다리 움직임 때문에 실수가 많았던 것 같다. 시합 때 정확히 포구하고, 잡으려는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다리가 잘 안 움직였던 것 같다. 한 발 더 움직여서 잡을 수 있는 것을 못 잡은 게 많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캠프에서 처음 호흡을 맞추고 있는 미즈마타 타이기 수비 인스트럭터가 김규성에게는 살아 있는 교과서다. 김규성은 "지금 은퇴하신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들었다. 자세를 먼저 보여 주시고 시작을 하는데, 뭔가 다르다. 수비 자세도 그렇고 다리 움직임도 그렇고 확실히 공을 잡을 때 여유가 있다. 클러치 힘이 빠져있다"며 "스텝이 돼야 편한 자세에서 더 편하게 잡아서 아웃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걸 많이 배우고 있다. 김민우 코치님도 다리 많이 움직이라고 하신다. 그래야 공을 잡을 때 타이밍이 더 편해진다"고 하신다"고 스텝을 이야기했다. 고참으로 캠프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도 김규성을 더 움직이게 한다. 김규성은 "수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 대 일로 핑고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후배들이 봤을 때 '저 형은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본보기가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있다. 애들이 봤을 때 '코치님이랑 일 대 일로 하는데 저것밖에 안 돼'라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더 열심히 하고 있다"며 "본보기가 돼야 해서 더 힘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캠프 와서 느끼는 게 많다. 많은 것 찾아가면 좋겠다.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한 성장을 다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전천후 수비수' 김규성이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강도 높은 '수비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페퍼스, 폴세트 접전 끝 '7연패 탈출'...안방 첫 승

한국도로공사에 3-2 승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홈팬들 앞에서 7연패를 끊었다. 페퍼스는 지난 22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폴세트 접전 끝에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를 세트스코어 3-2(25-22 25-23 20-25 20-25 15-13)로 제압했다. 최근 3경기 모두 셋아웃 패를 당하는 등 7연패에 빠졌던 페퍼스는 홈 첫승을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와의 개막전 이후 8경기 만에 거둔 시즌 두 번째 승리이기도 하다. 1, 2세트 분위기는 페퍼스가 주도했다. 1세트에서만 테일러가 오픈·퀵오픈·후위 공격 등으로 6득점을 올렸고, 장위가 이동 공격 3개를 해내면서 초반 공격을 이끌었다. 2세트에서는 18-19에서 테일러가 동점을 만들어낸 후 페퍼스의 연속 득점이 이어졌다. 23-23에서 장위가 속공, 박정아가 정확한 오픈 공격을 때리면서 2세트까지 가져왔다. 이어진 3세트 테일러의 퀵오픈이 아웃되며 1점을 내준 페퍼스는 반격을 시작한 도로공사에 최대 8점 차까지 벌어지는 등 승리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어 페퍼스는 양 팀 최대 득점을 기록한 니콜로바(21점)와 강소휘·배유나 등을 앞세운 도로공사에 4세트도 내줬다. 결국 승부는 마지막 5세트에서 갈렸다. 이한비의 스파이크 성공으로 선취점을 따낸 데 이어 상대의 연속 범실, 팀 유키 때마다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박은서의 거침없는 플레이로 페퍼스는 마침내 5세트에서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페퍼스는 이번 승리로 승점 2점을 더하며 6위(2승 7패-승점 6점)를 유지했다. 이날 팀 최다 17득점(공격 성공률 33.33%)을 올린 이한비가 경기 MVP로 선정됐고 장위 16득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22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를 세트스코어 3-2로 꺾었다. 연패 사슬을 끊고 홈 첫 승을 거둔 페퍼스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KOVO 제공>

점(40.74%), 박은서 13득점(44%), 박정아 12득점(19.61%)으로 뒤를 받았다. 팀 공격 성공률은 31.78%로, 상대(33.5%)에 근소하게 뒤쳐졌지만 선수들이 고른 수비 집중력을 보이며 팀 리시브 효율(41.41%)에서 상대(36.08%)에 비해 5%이상 앞섰다. 장소연 감독은 "선수들이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승리를 만들어낸 것 같다. 1, 2세트에서 잘하고도 3, 4세트 리듬이 맞지 않았는데 마지막 세트에

서 극복해 낸 것 같다"며 "홈 팬들께 첫 승리를 안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연패가 길어지면 아무리 경기력이 좋아도 (다운된)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승리 뿐"이라며 "승리로 반전된 분위기가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27일 오후 7시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정관장을 상대로 연승을 노린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셔틀콕 여제' 귀환...안세영, 중국 마스터스 우승

중국 가오팡제 2-0 완파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이 중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가쁜하게 정상에 섰다. 안세영(세계 랭킹 1위)은 24일 중국 선전의 선전아래나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중국 마스터스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가오팡제(28위)를 2-0(21-12 21-8)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32강, 16강에서 랏차녹 인타는(태국·18위), 송쉬인(대만·24위)을 2-1로 이긴 안세영은 8강부터 장이만(중국·23위), 미야자키 도모카(일본·24위)를 차례로 2-0으로 제압해 결승 무대를 밟았다. 마지막 상대 가오팡제마저 2-0으로 꺾은 안세영은 부상만 없다면 마땅한 적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유의 물 썩 틈 없는 수비력으로 연거푸 가오팡

제의 범실을 유도해 1게임을 21-12로 잡은 안세영은 2게임 한 때 19-6까지 달아나는 등 더욱 압도하며 낙승을 쟁겼다. 이번 중국 마스터스는 안세영이 금메달을 딴 파리 올림픽 이후 두 번째로 나선 국제 대회다. 올림픽 이후 두 달가량 휴식을 취한 안세영은 덴마크 오픈을 통해 복귀를 알렸다. 이 대회에서 준우승하며 여전한 기량을 과시한 안세영은 고질적인 무릎, 발목 부상 관리 차원에서 지난 17일 막을 내린 일본 마스터스에는 나서지 않았다. 안세영은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는 오른쪽 무릎을, 2024 파리 올림픽 사전캠프에서는 발목 힘줄을 각각 다쳤다. 김학균 감독 등 코칭스태프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 덴마크 오픈 때와 달리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는 로니 아구스티누스 코치, 성지현 코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음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년 11월 매주 토요일 17:00
 광주공연마루
광주상설공연
 11월 15일(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음악 힐링 콘서트>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